

PDF EDITION

BIBLIA

이스라엘
따라걷기

holinesscode@me.com

저작권 없음 공지

본 PDF 문서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BIBLIA에서는 하나님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록한 글과 찍은 사진입니다. 사전에 BIBLIA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재배포 환영

본 PDF 문서는 BIBLIA 독자 및 www.biblia.co.il 회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배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나 SNS를 비롯한 사회통신망에서 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 다운로드 후 재배포 할때에 BIBLIA를 명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 대형교회 참조

본 BIBLIA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소식, 그리고 학술적인 소식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미자립 교회나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혹,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대형교회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알아서 BIBLIA에 후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후원에 대해서는 www.biblia.co.il 에서 About BIBLIA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 이익상 holinesscode@me.com



Article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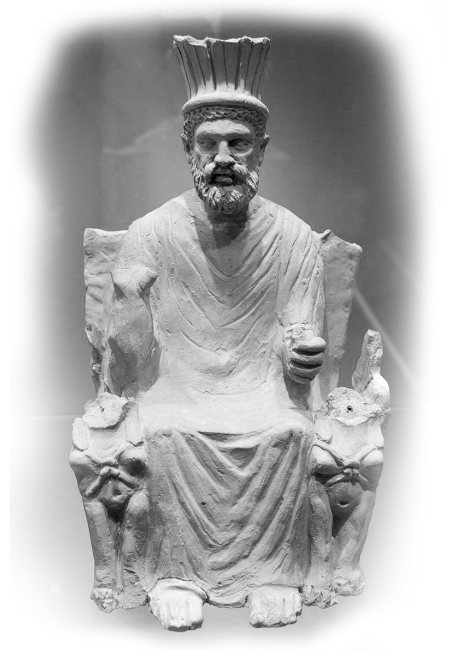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하니 (왕상 17:38-39)

고대 사회에서 이웃 나라의 왕을 섬길 때, “내가 당신을 섬기는 신하 나라, 신하인 백성입니다.”라는 표현의 방법은 섬기려는 나라의 신을 위한 신전을 자기 땅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전에는 자기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무개 신과 더불어 주군(主君)으로 섬기는 이웃 나라의 신이 나란히 있거나, 주군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의 신보다 더 뛰어난 신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신전을 짓지 않는다면, 자기 나라의 신전에 주군 나라의 신상을 세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아합이 시돈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세벨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가 보다는,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의 성격이었습니다. 시돈은 도시 국가 연합인 페니키아 왕국의 도시 중의 하나로 해상 무역과 뛰어난 해상 군사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호령하였습니다. 지중해변 동쪽 끝의 도시 국가 연합체인 페니키아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이르는 거대한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휘어 잡았으니, 페니키아의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왕국에 끼쳤을 경제, 군사적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페니키아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 페니키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홀홀단신으로 시집을 리는 만

무하지요. 이세벨은 시돈에서 자기를 섬기던 신하들과 종들을 대동하고, 거기에 신하된 나라 이스라엘에 당당하게 주어진 나라의 신 바알을 따르는 신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옛바알”인데, 그 이름의 뜻은 “그와 함께 하는 이는 바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 아니라, “임마누바알” (바알이 우리와 함께 있다.)인 셈이지요. 아합은 페니키아의 신, 바알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바알 뿐 아니라, 바알의 아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 놓았



페니키아의 신 바알 하몬의 형상. 페니키아의 주신은 바알 하몬이다. 페니키아의 도시 “시돈”은 고대 그리스어로 “어업”이라는 뜻이며,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가장 강력한 도시 중의 하나였다. 아합시대보다 대략 100년 후의 기록이기는 하나,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가 기록한 글에 따르면, 시돈은 유리공예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어업보다는 유리 제품의 수출로 부유와 명성을 쌓았다.

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상은 **바알**을 따르는 **페니키아**의 신민(臣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실존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장소에서 보여주는 형식이고, 실존은 성전 밖에서 경쟁하며 살아야하는 세상에서 쟁취할 수만 있다면, 불의와 부정을 판단하는 신앙의 양심은 잠시 저 깊숙히 숨겨 두는 곳이었습니다. 당장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는다고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페니키아**를 섬기지 않으면 경제, 군사적인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페니키아**를 왕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바알



엘리아 수도원에 있는 엘리아 석상. 엘리아가 바알 선지자를 밟아 올라서는 칼로 내려치는 장면이 석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갈멜산에서 해발 482미터 지점에 세워진 엘리아 수도원은 예로부터 수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찾아왔다. 이곳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순례자들이 찾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후 12세기의 것이다. 현재의 수도원 자리에 수도원이 세워진 것은 1858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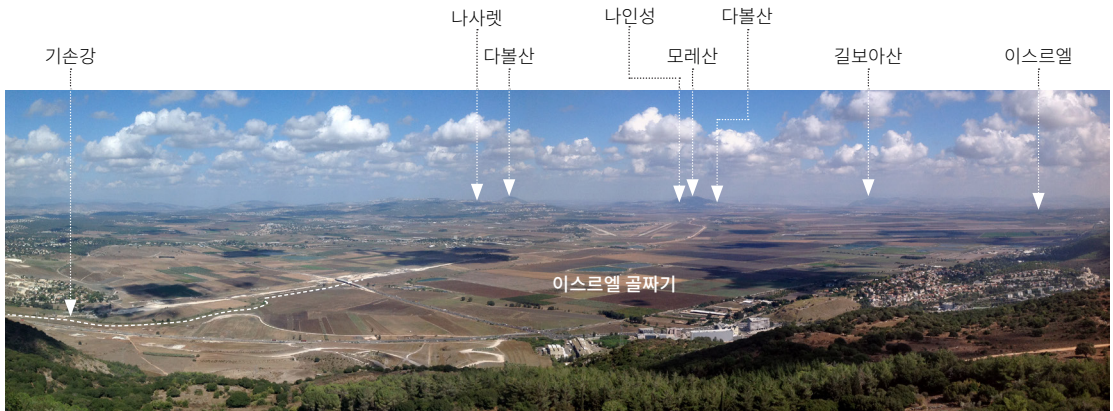
을 함께 섬긴들 문제가 있을까? 그냥 숫가락 하나 더 얹은 것 뿐인데 말이야.”

믿음과 삶이 함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당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적으로 버렸던 **이스라엘**은 결국 “가뭄”이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벌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바알은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거지요. 그런데, 가뭄이라니요? 지금 그를 위해서 **사마리아**에는 신전을 지어 놓고, 그를 섬기는 신관들이 끊이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삼년의 가뭄 끝에, **엘리아**가 하나님께 신실한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서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그것도 천둥 번개의 신이라면, 번개를 쳐서 불을 내려 보라는 것이지요. 천둥 번개와 함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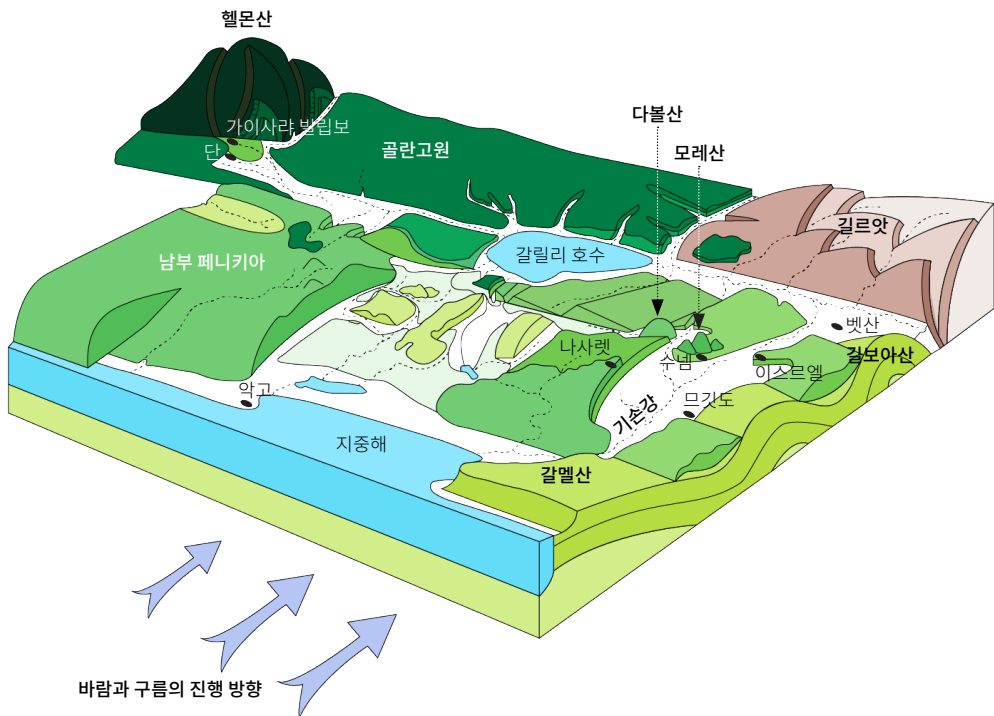
엘리아 수도원에서 내려다 본 이스라엘 골짜기

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못하겠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니 말입니다. 너 무나 잘 알려진 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며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기도해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왕상 18:38이

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서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밀려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산, **갈멜산**에 올라서면,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듯합니다. 저의 신앙은 삶

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삶 속에서 신앙과 부딪히는 그럴싸한 번영의 미끼가 내 앞에 던져졌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변함없는 주인이요, 왕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바람과 구름의 진행 방향. 서쪽으로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항상 바람이 서쪽 (지중해 쪽)에서 불어 온다. 서풍을 따라 물려오는 구름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첫번째 산이 갈멜산이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합을 갈멜산으로 부른 이유는 아마도 구름이 몰려와 가장 먼저 만나는 산이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